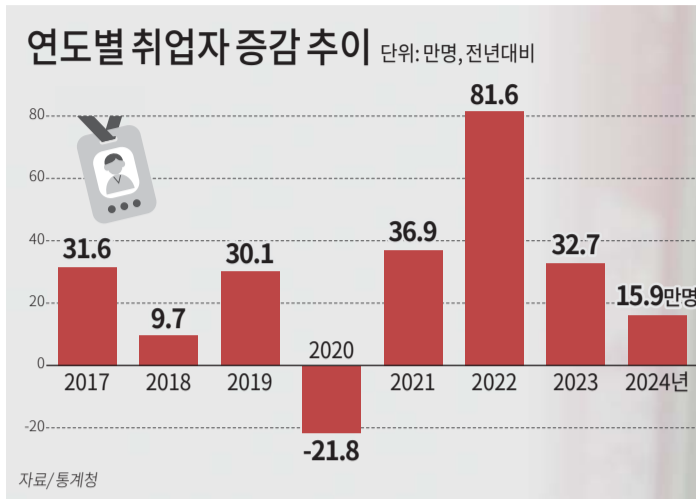


# 고용시장 ‘한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 4년새 ‘최저’

통계청, ‘12월·연간 고용동향’  
월간 취업자수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  
일용직 근로자 2012년 이후 최대 ↓  
20대 12.4만명 ↓, 2020년 이후 최대폭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간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



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26만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감소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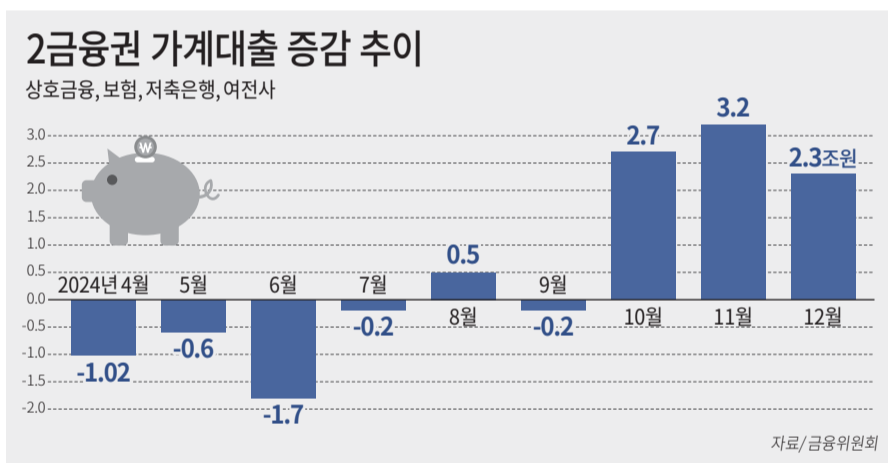
# 작년 가계대출 42조... 은행권 옥꿨더니, 2금융권서 늘었다

금융위-한은, 가계대출·금융시장 동향  
2021년 이후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  
2금융권 ‘풍선효과’로 상승 주도

지난해 가계대출이 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7조1000억원 늘며 전년(45조1000억원) 대비 12조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 줄었다.

◆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141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6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2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5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2000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뒤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8000억원 ▲11월 1조9000억원 ▲12월 -4000억원

으로 줄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8월 한달 간 8조2000억원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해 12월 8000억원 늘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월 3만호에서 10월 3만8000호로 증가한 뒤 11월 1만9000호로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줄어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0월과 11월 소폭 증가한 뒤 12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을 통해 대출을 갚는 이들이 늘면서 감소했다.

◆ 풍선효과 비금융권 가계대출 ↑  
은행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은 비은행권으로 몰렸다.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월 -2000억원에서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2000억원 ▲12월 2조3000억원 늘었다.

박 차장은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비은행권(2금융권)까지 같이 봐야 한다”며 “2금융권의 경우 신축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집담대출 등이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액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3조2000억원)가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조5000억원), 보험(5000억원) 순이었다. 상호금융은 9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거래량도 고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주택담보대출도 둔화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계대출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15@

# 얼어붙은 경매 시장... 재건축·시세이하 아니면 ‘찬밥’

대출 규제에 안전마진 물건만 인기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물품 수요 집중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재건축 단지나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물건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최소한의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물건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위권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최근 롯데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



지난해 1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전보다 1.8% 늘었다. 특히 서울은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146호로 전월 대비 690호(1.0%) 감소했다. /뉴시스

정한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전용면적 41㎡ 경매 2차 기일에는 10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최저 입찰가 8억1040만원보

다 높은 11억523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3.8%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60㎡는 지난달 12일 열린 경매에 13명이 몰리며 감정가(12억원)보다 높은 12억5000만원에 낙찰됐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송파구 장미아파트 전용 197㎡도 감정가(34억2000만원)보다 높은 35억160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 102.8%를 기록했다. 향후 재건축을 거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다.

과거 경매시장에 나오면 응찰자가 대거 몰렸던 강남 지역에서는 유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험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남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게 나온 물건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경매4계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20㎡에 대한 2차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경매는 실거래가와 비슷한 32억8000만원에 진행됐다. 잠실엘스 전용 120㎡는 지난해 11월 33억4000만원, 10월 32억3200만원에 실거래돼 감정가와 별 차이가 없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도 지난달 5일 감정가 38억9000만원에 1차 경매가 진행됐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는 지난해 12월 40억73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았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오는 16일 감정가보다 20% 낮은 31억1200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된다.

경기·인천에서도 시세차익이 확실한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 만현마을 엘지자이 전용 110㎡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4억5500만원으로 떨어지자 응찰자 12명이 몰리면서 해당 면적 최근 실거래가(6억9000만원)보다 낮은 6억7279만원에 낙찰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전용 60㎡는 최근 실거래가인 5억8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4억5100만원에 감정가가 책정되면서 응찰자가 무려 27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강도 대출 규제와 정국 불확실성 여파로 1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다섯 달째 하락하면서 보험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4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는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107.7을 기록했다. /뉴시스